



제 78 호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http://council.gb.go.kr> 2013. 11. (제265회 임시회)

경상북도 의회소식

새로운 천년의 비상,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상량식



-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 제265회 임시회, 2013년 의원연수회
- 인물포커스 / 특별위원장 인터뷰 4면
- 윤성규 윤리특별위원장, 황이주 서민경제특별위원장
- 특별기고 5면

- 홍 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 풍부한 문화 · 교육
자산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자
- 상임위원회 활동 6~12면
- 의회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 위원회 활동

- 도정질문 · 5분 자유발언 13면
- 도정질문 : 김원석 · 이상용 · 홍진규 · 박기진 의원
- 5분 자유발언 : 홍광중 · 김창숙 의원
-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건강칼럼 14~15면
- 성오용 소나무한의의원장 : 환절기 감기 예방과 한방치료법

지면안내

제265회 임시회

도민에게 희망·용기주는 생산적 의정활동

민생관련조례, 도정질문,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 가져



본회의에서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도민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3년 제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본예산 심사 등)을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10월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경북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0일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김원석(교육) 의원은 마이스터 운동활성화 방안, 이상용(영양) 의원은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지원 등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했다.

이어 10월 11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이 이틀째 이어졌으며, 홍진규(군위) 의원은 경상북도 물산업 관련, 박기진(성주) 의원은 남부권신공항 유치추진 대책 등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했다.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전심사와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을 가졌다. 10월 24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처리했다. 🍁

서호주의회와 우호협력의 폭 넓혀

마이클 서더랜드 의장 일행 방문



경상북도의회는 10월 7일 서호주의회 마이클 서더랜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일행을 접견하고, 상호 우호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서호주의회 방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으며, 복지시스템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과 같은 주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상호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송필각 의장은 “서호주의회의 이번 방문이 의회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양 지역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표지사진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상량식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상량식(上樑式)이 11월 5일 오후 2시 30분 신청사 이전지인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건설현장에서 송필각 경상북도 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경북도내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상량식은 신청사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송필각 의장의 상량문 봉안을 시작으로 경북도의원 전원의 상량목 올리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신청사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송필각 의장, 제13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출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9월 24일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3년 정기회’에서 제13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송 회장은 칠곡군 출신 4선 도의원으로 지방자치 부활 원년인 1991년부터 30여 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과 함께 일해왔다. 제9대 도의회에서는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후반기에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 회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책을 맞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4선 도의원의 경륜과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그동안 이루지 못한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

간인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출범했다. 🍁



의정만평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 송 필 각 기획·편집 | 임현성, 남정해
편집인 | 이태암 발 행 처 | 경 상 북 도 의 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앞두고 ‘의원 연수회’ 가져

‘독도는 우리땅’ 일본망동 엄중경고, 연수회 통해 민생의회·열린의회 실현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의원연수회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113주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참석자 전원이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독도홍보영상에 맞추어 ‘일본의 망동 엄중경고 및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일본의 망동 엄중경고 및 독도수호 결의문’은 작년 12월 아베정권이 출범하면서 일본의 우경화행보가 미친 듯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2월, 독도문제 전담부서 총리직속 내각 관방 신설 및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인사 파견, 8월에 일본국민 대상 독도 여론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터무니없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또 일본 외무성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터리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전 세계를 향한 독도도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연수회에서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각규성 지도과장은 지난 선거과정

에서 나타난 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강의로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선거법 위반사례 예방에 중점을 둔 강의를 했으며,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도의원 역할을 강조하여 참석한 도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송필각 의장은 “제9대 도의회는 도민을 더욱 더 잘 살피고 도민과 함께 하는 민생 의회·열린 의회를 실현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창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산물이라고 치하하고, 그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



경주에서 열린 ‘2013년 경북도의회 의원 연수회’에서 도의원들은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독도수호 결의를 다지고 있다.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독도 관련 동영상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연구위원회, 지방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정책방향 논의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9월 25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의 토론 주제는 지난 23일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상황에서 개최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워크숍의 주제발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는 지방의회의 현재 상황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자율성 확보방안과 보좌관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나기보 위원장·김창숙 부위원장 선임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0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나기보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창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복지예산 지방자치단체 과다부담, 권한의 새로운 중앙집중화 등에 대한 대응 등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의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의 경쟁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2년 연속 의정비 동결

경상북도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 연속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경북도의회가 어려운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도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2014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최종 동결이 결정되었다.

이번 의정비 동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송필각 의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도민과 교감하는 의회상 구현을 통해 의회가 성장할 수 있으므로 비록 경북도의회 의정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지만 동결에 적극 동참했다.”라고 했다. 🍁

임업발전연구회, 산림정책 발전방안 세미나

산림관련 조례정비로 효율적인 산림정책 수립 및 발전방안 모색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임업발전연구회(대표 김기흥 의원)는 장세헌 정책연구위원장과 도의원, 외부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에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산림 관련 조례정비로 효율적인 산림정책 수립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도의 산림정책 발전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자칫 피폐해 지기 쉬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 산재한 산림을 활용한 휴식과 여가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도의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의 활용,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등 산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

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신뢰와 사랑 듬뿍받는 도의회 실현에 앞장서..



 **문성규** 윤리특별위원장(경산시 3)

“특위가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의원을 조사, 징계여부를 심사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올바른 윤리적 가치형성의 정체성 확립 등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듬뿍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성규 도의원(경산시 3)의 위원회 운영방침이다.

문성규 위원장은 경산시의회 제3대 시의원, 제4대 전반기 부의장, 제5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2010전국 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의회정봉사대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제9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새천년 신도시 시대를 여는 도청이전 명품 신도시조성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김천혁신도시, 대구지하철 1호선 경산하양 연장 등 경북발전의 확고한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밀착 의정활동에 온힘을 쏟고 있다.

또한, 후반기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의원 스스로가 윤리의식을 높여 도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등 동료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2013년 6월에 의용소

방대장의 임기가 최장 9년까지 장기연임으로 조직체제 등 문제점의 개연성이 높아 연임을 2회 하향조정(최장 6년 가능)하여 의용소방대조직이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6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한·중 FTA체결에 대비한 경상북도의 농·어업 대책과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시스템 도입’, ‘남녀 교원 성비 불균형 문제’, ‘초임교사 배치 지역 편중현상’ 등 현장 의정활동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자문위원회,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안전망연구회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제2대 초우회 회장을 맡으면서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정견발표회’를 주도하여 후보자 소신 및 비전 제시를 통해 의장 선거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앞서 의장 후보들이 자신의 정견을 발표토록 하여 주목을 받았다. 🍎

도정의 최우선 가치,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살리기부터..



 **황미죽** 서민경제특별위원장(울진군 2)

황미죽 위원장은 매일신문사 기사를 거쳐 제9대 도의원이 되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9대 도의회 후반기부터 서민경제특별위원장을 맡아 민생안정과 서민경제살리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민생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민가계를 위협하는 물가를 잡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장과 밀착하여 소통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서민들이 무엇에 고통을 느끼고 무엇을 고민하는 지 살펴 왔다. 또한 서민의 삶의 현장인 전통시장과 복지원 등을 자주 방문하여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해 왔다.

또한 황미죽 의원은 서민 및 민생경제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대표 발의 하였고, 도정질문을 통해 지진해일 및 원전안전 대책, 원전 중단사태 관련 대응 방안 등 원전관련 안전대책 마련과 연어방류사업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 울진 임대주택 건축,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등 지역산업과 교육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을 항공 MRO(항공기의 유지, 보수, 정비) 메카로 육성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특화대상 신설 등을 주장하였다.

황미죽 위원장은 “고용없는 성장은 결코 서민들이 경제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렵다.”라는 평소 소신으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 등의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가 서민들의 가계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점을 감안하여, 비정규직 고용유지와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서민경제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풍부한 문화 · 교육 자산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자

홍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우리나라의 3·1독립운동을 보고 지은 시 '동방의 등불'에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중략)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중략)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라고 읊었다.

타고르의 위로와 격려대로 우리나라는 '동방의 등불'이 되었다.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지 70여년,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때로는 달려서 때로는 기어서 세계만방에 태극기를 휘날려 왔다. 88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산업화의 성공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서 민주화의 성공을 알렸다. 삼성 스마트폰이,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누비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우리를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2년 6월 23일 세계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에 가입한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다. 스스로 선진국이라 자칭하는 캐나다와 호주는 인구가 못 미쳐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는 경제력이 안 돼 2050클럽에 포함되

지 않는다. 그 만큼 2050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은 '강하고 큰 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다.

다시금 우리는 3050(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향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여 동방의 밝은 빛이 되어야 한다. 3050의 길은 2050때와는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선진국의 모습을 배워서 따라가면 되었다. 그러나 3050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길이어야 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K-POP을 세계에 알리고 있지만, 한국적인 것이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창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의 깃발을 드높이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2의 한강기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3050을 향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첫째는 빈부 격차, 둘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셋째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그리고 넷째 노인층과 청년층 간 사고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4가지 격차가 갈등으로 비화

되어 우리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4가지 격차도 확 줄이고, 3050을 향한 창조경제를 달성하여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한다.

4가지 격차 중 우리에게 가장 심각히 다가오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면서, 온갖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산업 육성정책으로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전자도시 구미도 수도권의 신산업(IT, BT 등) 등장으로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고, 중국이나 동남아 도시들과 경쟁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21세기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강한 남성미보다 부드럽고 예쁘고 섬세한 여성미가 더 인기를 끄는 시대이다.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이 중심에 자리를 잡

“창조경제의 깃발을 드높이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2의 한강 기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면서 수도권이 인근의 충청도와 강원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남쪽지역인 영호남의 존재가치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창조경제를 성공시켜 3050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영·호남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만, 중부권(수도권+충청도+강원도)만 잘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없다. 아직도 영·호남에는 1,85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 영·호남 주민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하고, 또 그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힘준한 산악으로 둘러싸인 대구경북은 역사적으로 선비의 고장이었다. 신라의 화랑정신을 이어받은 호연지기의 대구경북은 훌륭한 국가지도자를 많이 배출하여 국가발전의 주역을 해왔다. 그러나 세상 변화는 반드시 대구경북의 편만은 아니었다. 경상감영(경상도 도청 소재지)의 도시 대구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항구도시 부산에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자리를 내준 지 오래다. 철강도시 포항도 중국의 철강

는 시대다. 이런 시대는 문화와 교육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문화와 교육은 창조경제의 키워드이다.

대구경북은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다.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의 유산이, 안동·영주를 중심으로 유교문화의 유산이 산재해 있다. 대구권에는 20개가 넘는 대학들이 포진해 있다. 그래서 남들은 대구를 교육도시라고 불렀었다. 이렇게 대구경북에는 21세기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화와 교육을 누가 어떻게 21세기적인 상품가치로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다.

결국 대구경북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리더십'에 귀착된다. 우리 지역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의 우수한 문화적, 교육적 자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해야 한다. 내년은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창조경제로 무장한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의회운영위원회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지원 주민 생존권, 경쟁력 강화 도모하는 신공항 건설 매진



1.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2. 의회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및 협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10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부권 신공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도의회사무처, 도 본청·도 교육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76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 및 협의하고, 11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42일간 개최 예정인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결했다.

처리안건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연구단체에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남부권 신공항 특위'는 신공항 건설에 관심이 많거나 업무 연관성이 많은 도의원 9명으로 구성하여 지방의 균형발전 및 영·호남, 충청권 등 남부지역 2천만

주민의 생존권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신공항 건설에 매진토록 했다.

제9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제11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개선방안 등 안건협의와 토론 등을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 주요처리 안건은 지방공기업에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장 선임을 위한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 및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농업

인 소득안정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의결하여 국회, 안전행정부, 산업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현안사항 협의

10월 10일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10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는 도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협의했다.

주요 협의안건은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2014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해안발전추진단 조직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 조정, 남부권 신공항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하고, 해외 자매결연 의회인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의회와의 친선교류행사와 2013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 개최계획 등을 논의했다. 🏠

남부권 신공항 특별위원회 구성

고우현 위원장·이영식 부위원장 선출, 항공 수요 전과정 모니터링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4일 '남부권 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65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영·호남 및 충청권 등 2천만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2관문 공항조기 건설

을 지원하기 위해 도의원 9명으로 남부권 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남부권 신공항 특위는 현재 진행 중인 영남지역 항공 수요조사에서 용역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 고우현 의원(문경), 부위원장에 이영식 의원(안동)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 위원은 이들 2명을 포함해 김하수(청도), 구자근(구미), 김기홍(영덕), 광광섭(고령), 윤창욱(구미), 김희원(칠곡), 배한철(경산) 의원 등이다. 🏠

기획경제위원회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및 동해안발전추진단 설치 관련 조례안 의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10월 11일 상임위를 개최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산시의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4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보고에 대해 기획경제위원들은 부채를 내어 공사를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하며 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도본청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 실국을, 지방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은 (재)대구경북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박진현 위원장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운영



행정사무감사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소관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체계적 동해안 발전 추진 위한 동해안발전추진단 설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대비 연찬회·토론회 가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도민의 뜻을 전달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안선의 길이가 가장 긴 경상북도 동해안의 종합 발전을 위한 「동해안발전추진단」 설치를 골자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황이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기욱 의원 외 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김세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대비 연찬회 개최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소관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좀더 깊이 있고 폭넓은 심사를 위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 교육위원회 김수용 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이 참석하여 대구보건대학교 성백춘 교수의 '예·결산안 검토 기법'을, 통도사 포교국

장을 지낸 분다빠라 스님의 '마음산업의 흐름'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연찬회에서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과 김수용 교육위원장은 "집행부의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어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2014년도 예산안의 적정 편성 등을 심사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1.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경남 양산에서 연찬회를 가졌다
2. 경남 양산 통도사 주지스님인 원산 도명스님과 차담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3.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장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유가족까지 확대 기초연금 정책 현황과 문제점 토론자리 가져

장애인 거주시설·헌혈권장 등 조례안 의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10월 1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8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황이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순선위 1명)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로 신고·운영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개인운영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경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거주외국인 업무와 다문화 가족 업무를 다문화행복과로 업무를 통합하여 관련 사업 수행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우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는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인권침해 사례 확인·접수 시 당사자 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매분기 말까지 전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했다.

박병훈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위한 서비스 질적 향상 필요 연찬회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 위한 재충전 시간 가져

또한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사업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등 신축 4,717㎡, 26,400백만원에 대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의결했다.

전문지식 함양 위한 의원 연찬회 개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채옥주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상임위 연찬회를 10월 16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전문가

초청 특강과 복지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 현장체험 등을 통해 의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

연찬회 특강에서 제주한라대학교 박차상 교수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초연금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UN이 규정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노인인구 비율이 2010년 11.0%, 2020년 15.1%로 1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0년에는 2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초고령사회도 멀지 않은 장래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교수는 저출산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들과 같이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의한 사회와 경제적 활력의 저하 그리고 의료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국가적 과제이며, 이에대한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초연금 정책 시행 문제점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물가상승률 연계 방식, 3조원이 넘는 지방재정 부담, 여·야 합의 등 3대 쟁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강후 제주선문화진흥원 강사를 초빙하여 진정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명상 휴(休)' 체험시간도 가졌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연찬회를 통해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장면

2·3. 2013년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연찬회

문화환경위원회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1. 용인 수지 레스피아(하수처리시설) 견학
2.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찬회
3. 인천근대건축전시관 견학
4. 제94회 인천전국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 타 지역 수범사례 비교 체험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통해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계획

이스탄불 엑스포 성과, 문화관광 및 환경해양 업무 개편안 보고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0일과 11일, 소관 분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비롯해 2013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했다.

10일, 위원회는 이스탄불 엑스포 성과, POST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과 연계한 엑스포 지원 기능과 실크로드 재조명 기록 등을 위한 문화교류협력과 신설안 등 소관 기관과 부서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 보고회를 가졌다.

문화관광체육국의 부서 개편안은 21C 문화실크로드 추진과 문화교류정책, 엑스포 기획지원 등을 전담할 문화교류협력과 신설, 기존의 관광마케팅사업단의 업무를 관광진흥과에 흡수하고 관광마케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북관광공사에 마케팅분부를 신설해 관광마케팅조직을 확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경북의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과 국내외 관광홍보 등 단위업무 적정 배분에 있어 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간 신중한 협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8월 31일부터 9월 22일 23일간 고대문명의 요람이자 동서 문명의 교차로인 터키 이스탄불 시내 일원에서 펼쳐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선진 EU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동반자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문화선진국으로 전세계에 각인될 수 있도록 문화융성의 새 길을 열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경북도의 기구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

소관 부서의 현안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 연찬회와 인천전국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현지확인

되는 '동해안발전추진단' 업무에 환경해양산림국의 해양정책과 독도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환경해양산림국은 환경산림국으로 개편되는 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11일에는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모두 14개 기관(부서)으로 도 본청은 문화관광체육국을 비롯한 6개 국·직속기관·사업소를, 지방공기업은 경북관광공사, 출자·출연기관은 (재)문화엑스포 등 7개 기관을 실시하게 된다.

연찬회 통해 전문지식 함양과 소통의장 마련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시, 김포시 등지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소관 업무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타 지역 특화사례 비교 체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위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날에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하고 전국에서도 모범적 하수처리시설인 수지 레스피아를 방문해 지하화된 하수처리설비와 수처리

고도화 기술인 'PADDO'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상에 조성된 주민자치센터, 스포츠센터, 축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둘러 보았다.

경인아라마리나 세미나실에서 수질환경 전문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환경복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인 김성진 박사의 '경북관광의 과제: 관광명소와 관광비즈니스의 창출'이란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에 한·중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한중문화관과 인천 개항 역사의 중심지에 자리 잡은 인천개항박물관, 근대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근대건축전시관, 짜장면박물관을 차례로 둘러보고 인천항의 발전배경과 모습들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위원회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뛰자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경상북도체육회 상황실과 참가 선수단을 방문해 체육회 관계자와 참가 임원·선수를 격려하고, 체육응도에 걸맞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수산위원회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1.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업무보고
2. 영천 와이너리 현장견학
3·4. 영천경마공원 현장보고

친환경 학교급식·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청소년 심신발달 도모 경북농민사관학교 업무보고, 영천경마공원 현장확인 가져

농업인과 사전계약 등의 방식재배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도시와 농촌 상생발전 통해 농촌지역 활력증진 기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 등 심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10월 14일 제 26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8월 31일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의회로 부의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 주민 청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농수산위원회 무상급식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 업무보고, 타 시도 벤치마킹, 학교급식관계 및 관계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정·보완, 농수산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상북도친환경무상학교급식 소위원장”으로 활동한 정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

년 10월 14일 심사·의결했다.

조례의 주요특징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한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구축하고, 도시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전에 교육감과 시장 군수와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물로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도지사가 별도로 지원하는 곳을 통하여 공급토록 하며,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수한 식자재가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광역단위 식자재 공급체계 구

축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학교를 다니면서 시골살이를 체험함으로써 지역의 학교도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에 기여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말분 의원이 제안하였으며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고령화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경상북도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기보 의원이 제안했다.

업무보고 및 현장 확인

제265회 임시회 기간중 1박2일 일정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후 손재근 FTA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도청 시대 경북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지난해 경마공원 조례가 통과되어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영천경마공원 현장에서 보고 받은 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지역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건설공사 수주확대 전기 마련 신청사 이전, 북부지역 발전방안 모색 의정활동 역량 강화

민생관련 조례안 제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열린 제265회 임시회기중 10월 14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산업 참여를 확대시키고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유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규정 등을 명문화 했으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제한'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장영석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하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수 의원(청도)이 발의한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어 건설소방위원회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 등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총 22개



1. 201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연찬회

2.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장면

3.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경관디자인 비교견학

운영실태 면밀히 파악, 문제점 개선위한 정책감사 추진 전문성과 역량 강화해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대

기관으로 도본청은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이며 직속기관으로는 소방학교·17개 소방서와 1개 사업소(종합건설사업소) 등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장두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1명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면서 “제9대 도의회 마지막인 만큼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고질적인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정활동 전략 강화를 위해 연찬회 개최

15일부터 16일까지 전남 목포와 전북 남원에서 정치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정활동 전략강화와 전남도청이 위치한 남악신도시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해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 북부지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 등 상임위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대비해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해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오명규 강사를 초청하여 '정치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정활동 전략강화'와 '지도자의 해학과 소통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청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과 역할은 물론 지역발전과 시민봉사로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를 가졌다. 이어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경관디자인을 비교견학한 뒤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북부지역 활성화 방안을 위해 자체토론의 시간을 가져 위원간에 상호의견 교환, 대안 제시 등 열띤논의를 했다. 🌟



교육위원회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예산안 심사 위한 자료 수집, 정책방향 제시 소관업무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물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례회 앞두고 업무연찬회 가져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4일부터 15일 까지 2일간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에서 합동 연찬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소관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좀더 깊이 있고 폭넓은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김수용 교육위원장은 “집행부의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어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사무의 올바른 집행과 2014년도 예산안의 적정 편성 등을 심사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1. 교육위원회 회의 장면

2~4. 경남 양산 통도사 업무연찬회



도정질문

고학력 청년실업 등 현안사항에 강력 대응 주문

김원석 의원(교육 1)

고학력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마이스터 운동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전문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 및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고려한 취업지도와 추수지도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소아 응급 의료체제 구축을 위하여 소아전용 응급실 개설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대책 및 영·유아 응급 처치에 대한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예산낭비 등으로 인해 말산업 육성을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생겨나

고 있는데도 경북도에서 여전히 말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승마장 건설에만 추진하다보니 여러 난제들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발굴을 위하여 양적보다는 질적인 영재교육 내실화에 치중하여야 함을 주장했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위한 “농촌전문형 건강지원센터”설립 해야

이상용 의원(영양)

경북지역 농가인구는 46만 5,408명으로 이 중 여성농업인은 23만 7,831명으로 농가인구의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영농과 가사의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한 예로 발작물 하우스 재배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대부분이 65세 이상 되는 고령 여성으로 만성 관절염과 호흡기질환, 열사병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

히 종합병원이 없는 군 단위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용 의원은 경북지역은 고령화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농촌전문형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요구했다.



일자리 관리실태, 물산업 발전 대책 강구해야

홍진규 의원(군위)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는 3만5천개로 15%에 불과하며, 일자리 미스매치현상 지속과 청년실업을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아 도민들은 일자리창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북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도민의 취업관리시스템 구축, 일자리 사후관리대책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출된 일자리에 도민이 얼마나 취업했느냐라며 도민의 취업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북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2015년 세계물포럼을 앞둔 경북도가 행사 사용할 ‘병물’ 조차 생산하지 못하는 등 물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다목적댐 중 수질, 경제적 측면,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 가장 경쟁력 있는 댐의 수자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남부권신공항건설 대응전략 개발, 세수보전대책 마련 서둘러야

박기진 의원(성주 2)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남부권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각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12년 2월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 결성했다.

정부에서도 지난 8월말 한국교통연구원이 영남지역 항공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의 노력과 그 결과가 아주 미미한데, 남부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타당성 개발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물

론 교부세 규모 축소로 투자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복지분야 예산은 더욱 늘어나고, 내년 후반기에 도청신도

시 이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으로 경북도의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 취득세 인하분 전액보전책과 지방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부담을 상향 조정 등 경북도 차원의 세수보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 자세 확립

홍광중 의원(교육 4)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 과거에는 강한 충성심을 갖고 오로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우수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았으나, 2000년을 전 · 후해서 국민이 바라고 국가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 상’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시대의 공직자는 청렴은 기본이

며, 지역과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내 자신의 일같이 고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진취적인 발상과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대책 마련

김창숙 의원(비례대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식재료의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북도가 보유한 방사능 측정

장비는 폴리머스터(PM1405) 10대는 일반 도민들도 쉽게 구입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 장비라고 지적하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하여 농수산물들의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는 등 대책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제265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자** : 장세현 의원 외 14인
제정이유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 및 연구에 기초한 입법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 요구 증가에 따라 심도 깊은 정책연구와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 상제도 도입을 통한 의원연구단체 및 외부전문가의 연구의지와 성과 제고 등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발의자** : 도기욱 의원 외 1인
제정이유는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대(代)를 이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향토뿌리기업과 향토산업사의 열이 깃든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해당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발의자** : 황이주 의원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발의자** : 김세호 의원
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이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투자이행 담보규정을 지방비 지원사업에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새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과 신도청시대 개막 등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바다시대를 대비한 해양경북 조기실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동해안을 아우르는 新 발전전략 추진체계 확립과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과 연계한 실크로드 재조명·기록 등을 위하여 업무기능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미래 바다시대에 대비한 해양경북 조기실현과 동해안을 아우르는 동해안 新 발전전략 추진체계 확립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 구자근 의원
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투자와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원 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 고우현 의원 외 6인
제정이유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 박병훈 의원 외 3인
제정이유는 국가의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 황이주 의원
제정이유는 경상북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통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성 함양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 이경임 의원
제정이유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경상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 황이주 의원 외 10인
개정이유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제안이유는 기존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부지내에 산림휴양·치유·체험 등 산림을 테마로 한 특성화 된 ‘산림문화 휴양촌’을 건립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및 주변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코자 함이다.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발의자** : 김말분 의원
제정이유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 도모하기 위해 농촌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범위와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유학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발의자 : 나기보 의원 외 4인

제정이유는 경상북도 농어촌지역의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고, 고령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소득안정 등을 통하여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시행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발의자 : 정영길 의원 외 10인

제정이유는 2011. 10. 8 황대철(대표)이 도내 주민(유호) 23,660명의 서명을 받아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도모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에 제출한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 주민 청구(12. 8. 31)가 도의회에 회부, 농수산위원회에 배정되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농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집행부 업무보고, 타시도 벤치마킹, 학교급식 관계자 등의 간담회·공청회와 중앙부처, 관계전문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상북도내 학교 등의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친환경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 '경상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한 것이다.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 김하수 의원

제정이유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을 사전점검·정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 이시하 의원 외 2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낙동강연안의 부분별한 개발방지와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동강연안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경상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령에 따른 경상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 장영석 의원 외 4인

개정이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며, 도내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를 정하여 도 및 시·군에서 적극 유치한 기업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수의분양 근거 마련,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들의 산업시설용지 확보 문제 해결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건강칼럼

환절기, 감기 예방과 한방치료법



로 고생할 수 있다.

만약 감기가 2주 이상 넘어서게 되면 기관지점막 손상은 물론이고 만성편도선염, 비염, 축농증, 중이염 등 <만성>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므로 한방치료의 중요성이 발휘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감기치료는 바이러스를 생각하기 보다는 감기를 앓고 있는 주체 즉 내몸의 상태를 더 중요시 한다.

인체의 저항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바람의 기운이나 찬 기운이 침범하여 감기에 걸린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로 인체의 저항력을 증강시키고 풍의 기운이나 한의 기운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상한론>이라는 학문이 있어 감기를 비롯한 그와 유사한 증상들을 연구

하고 이를 진료에 적극활용하는 한의사들의 학회가 따로 있을 정도이다.

감기의 한약 요법으로는 체온조절 중추신경의 기능과 말초혈관의 순환과 면역기능 등을 정상화시키며 해열시키는 계지(桂枝), 피부한선을 확장하여 발한시켜 해열시키는 마황(麻黃),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해열시키는 갈근(葛根) 등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치료한다.

몸살 두통이 심하면 계지(桂枝), 백작약(白芍藥), 열이 많이 나고 갈증이 심하면 석고(石膏), 맥문동(麥門冬), 체온조절 중추신경을 하강시키며 해열시키는 시호(柴胡), 기침이 심하면 기관지의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길경(桔梗), 행인(杏仁), 산백피(桑白皮), 반하(半夏), 재채기가 심하면 말초혈관의 확장으로 면역기능을 증강하는 세신(細辛), 기관지를 보호하는 오미자(五味子), 피로가 극도로 심하면 심장기능이 쇠약해진 경우에 황기(黃芪), 인삼(人參) 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치료한다.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요즘같은 환절기에는 보온에 주의하여 찬기운에 오래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여 체액손실을 방지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저항력을 길러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식탁에 야채를 많이 올려야 하며, 무엇보다 감기환자와 접촉을 피하여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소나무한의원 / 구미시 인의동 365-5

☎ 054-472-8325 📍



성 오 용

소나무한의원장

가을철 아침저녁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남녀노소가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것이 감기다.

통계에 의하면 일년에 평균적으로 성인은 2~3회, 소아와 노약자는 4~6회 정도 감기로 고생한다.

감기는 급성비인두염이라고 하며 감기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바이러스이며 그 종류만 하더라도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서 주는 처방은 항생제 소염진통해열제, 기침약, 가래약, 콧물약, 위장보호약이다.

이중에 병원체인 감기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는 감기特效약이나 감기백신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모두 증상완화제 즉 감기에 걸린 기간동안 덜 아프고 편안하게 병치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들이다.

“감기는 약을 먹으면 1주일, 복용하지 않으면 7일 간다”는 말은 이래서 나왔다.

대부분의 감기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약을 쓰지 않아도 2주 정도면 별다른 후유증이 없이 지나간다.

또한 가벼운 감기는 평소에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자극하고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백해무익한 것 만은 아니라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는 노약자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의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 DO PROVINCIAL COUNCIL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작은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지역과 국가발전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외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참 봉사를 실천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익신장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300만 경북도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